

SMART POHANG 2011
영일만 르네상스를 향하여



여 리 포 항

2011. 반상회보
www.ipohang.org
발간등록 75-502000-00010-08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조성 본격화
동빈내항 복원사업 착공 임박
사랑의 수지침을 놓는 박영자 씨
테마산책 흥해읍 북송리 북천수

기계천 杞溪川*

겨우내 동네 아이들 함성이 흐르던 개울에
봄비가 길을 내면 개울은 모로 누워
겨울 동안 야윈 들판에 젖을 물립니다
논두렁에 살이 오르는 소리 따라 달력은 장을 넘기고
산은 신록의 물결로 춤출 준비를 합니다

모내기가 끝나고 벼들이 키를 키우면 개울은 다시 아이들 차지
학교를 마치면 약속이나 한 듯 세간을 들고 개울로 모입니다
광연이는 소쿠리를 들고 길목을 지키고
희준이는 풀섶에 숨은 물고기를 훑어 내고
그렇게 몇 합을 주고받으면 주전자 안은 개울 인심으로 가득 찹니다
해님이 시작되면 굴뚝은 봉화를 올리고
한 상 가득 차려진 개울 인심에 동네는 금방 잔치판이 됩니다
잔치도 끝나고, 여름도 개울을 따라 흘러가고
들판도, 산도 조금씩 개울에 색을 실어 보내면
잘 익은 기계(杞溪) 들판마냥 미꾸라지들은 남은 젖에 살을 찌웁니다

마른 개울엔 다시 그 미꾸라지를 닮은 아이들 함성이 길을 내고
형산강을 지나 동해로 간 기계천(杞溪川)을 따라 40년을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개울 젖을 물고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 포항시 북구 기계면 들판을 흐르는 하천.

이주형 시인

『시향』 현대시 50선 선정, 푸른시 동인, 포항문인협회 회원.

열린포항

www.ipohang.org



●● 04



●● 06



●● 08



●● 16

03 | 2011 CONTENTS

- 04 기획 | 동빈내항 현장상황실 개소
- 06 포토에세이 | 덕동문화마을에 슬그머니 들른 봄
- 07 연중캠페인 | 나눔은 행복입니다 ②
- 08 테마산책 | 흥해읍 북송리 북천수
- 10 문화&교양 | 공연·전시·단신 등
- 12 포항스토리텔링 | 왕릉사 목상의 수난
- 14 생활라운지 | 생활정보·단신 등
- 16 시정브리핑 | 주요 시정 뉴스
- 19 의정브리핑 | 주요 의정 뉴스
- 20 포항레이더 | 포항시 및 유관기관 알림
- 22 포항사랑 | 지역 사랑 및 장학금 등 기부
- 23 갤러리 | 영일만 그 품속으로

44년 전인 1967년 포항시까지 전경. 현재 포스코가 자리한 곳에는 명사십리 백사장이 펼쳐져 장관을 이루는 등 당시 포항의 해안선이 수려했음을 보여준다.

손글씨 · 이현정



발행처 | 포항시
 발행인 | 포항시장 박승호
 편집인 | 홍보담당관 이점식
 편집담당 | 홍보담당장속경, 장성윤
 담당주소 | 790-7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1(대장동 1001) 054)270-2233
 발행일 | 2011년 3월 23일(통권 제91호)
 기획·편집 | (주)금강미디어 054)275-0558
 인쇄 | 성광인쇄 054)283-2162
 홈페이지 | www.ipohang.org 열린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빈내항 현장 상황실 개소

어느 봄날의 유쾌한 오후를 기다리며



“저는 동빈 내항을 지날 때마다 멀지 않은 장래, 어느 봄날의 유쾌한 오후를 상상합니다. 동빈 내항 수상카페에서 시민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유람선을 타는 상상을 합니다. 한 월간지에서는 저에게 운하 뚫는 남자라는 별칭을 달아주며 대통령을 닮았다는 과찬을 했습니다. 사실 동빈내항 복원사업이 가능할지 많은 시민들께서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박승호 포항시장이 했던 민선5기 취임사의 한 대목이다. 이렇게 동빈내항 복원은 비단 박승호 시장만의 유쾌한 꿈이 아닐 것이다. 이는 52만 포항시민의 꿈이자 희망일 것이다. 그런데 그 꿈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동빈내항을 거니는 어느 따뜻한 봄날의 유쾌한 오후가 더욱 기다려진다.



동빈내항 복원사업 5월 중 착공 예정

동빈내항 복원사업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실적이 3월 7일 현재 94%에 이르고 있다. 포항시는 이날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이진수, 문명호, 이동우 등 지역 시의원, 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사무소(남구 해도동 송림초등학교 인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아직까지 보상금을 찾지 않는 토지의 소유권이 3월 16일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인 LH공사로 이전됨에 따라 공사에 보다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이날 현장사무소를 개설했다. 현장사무소가 개설됨에 따라 시청 동빈내항팀 전원은 이날부터 현장근무에 들어갔다. 이들은 현재 편입 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이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 말일자로 재결서에 따른 협의보상이 만료됨에 따라 보상금을 찾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했다.

현재 보상상황은 해도동, 송도동, 죽도동 등지의 토지 건물 등 483건 가운데 94%이며, 지난 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절차를 거쳤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석면조사 용역을 구역별로 마무리하고, 5월 중에는 가능한 구역부터 건물철거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이날 “동빈내항 복원사업은 52만 포항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포항이 환경도시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빈내항의 생태를 복원하여 지역상권을 회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포항의 품격을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빈내항복원사업은 남구 송도동 해도동, 북구 죽도동 구간 형산강에서 죽도시장 앞까지 도로 1.3km에 운하를 설치하는 수로복원사업으로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세계적인 환경복원사업으로 각광 받는 것은 물론 포항의 랜드마크로, 관광자원으로 발길을 모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랑의 수지침을 놓는 박영자씨



박영자 씨가 실여울 봉사단 회장이 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녀의 남편 유운칠 씨는 한때 업무 과로로 심부전증을 앓다가 생을 포기할 상태에 놓였다. 절망 끝에 그녀는 수지침을 배워 남편을 살려냈다. 그녀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수발을 들면서 어른들 모시기에도 관심을 보였다.

올해 58세인 박영자 씨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그녀는 12년째 포항원광보은원, 참좋은이웃, 정애원, 학산복지관,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등에서 수지침을 놓는가 하면 건강교양강좌, 놀이교실, 기체조를 하기도 한다.

“아야, 아야 하면서 한 달에 얼마를 병원에 갖다주기보다는 삶의 활력을 되찾는 봉사활동을 하면 좋잖아요? 힘들고 외롭게 사는 이웃에게 다가가기만 오히려 득입니다. 신선한 에너지를 얻으니까요.” 그래서일까. 오늘도 박영자 씨는 환한 웃음이다.

글 | 정차준 사진 | 안성용



천 개의 목숨, 만 개의 목숨이 사는

북천수

북구 흥해읍 북송리에는 북천수가 산다. 일제 때 벌목 대상으로 곤혹을 치렀고 해방 뒤 조선 사람들 손에서 다시 우뚝 자란 그 북천수 말이다.

북천수에 사는 목숨이 비단 북천수뿐이라. 산림청이 선정한 생명의 숲 우수학교인 흥해서부초등학교는 적송과 곰솔을 거느린 북천수와 함께 숨을 쉰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아침 6, 7시에 자전거를 타고 숲속으로 온다. 북천수가 생명의 숲이자 2006년 3월 28일 문화재청이 선정한 제 468호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이다.

흥해서부초등학교 가까이에는 '북천수 할배', '북천수 할매', '시집 간 날' 이 산다. 이들은 북천수 지킴이 장승들이다. 이들 중 '시집 간 날' 은 비바람에 삭아 누워 있다. 북천수에는 딱따구리가 살고 벤치와 간이화장실과 농구대도 산다. 북천수는 배구와 족구를 하는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지는 않는다. 소나무 옆에서 고개를 내민 어린 쭉들은 나도 여기 산다고 조용히 주장한다. 하지만 소나무 뿌리에 고인 물은 어린 쭉들이 모시고 대접해야 할 이곳 어른이다.

농구대가 있는 쪽에서 열 번째 목조계단을 밟고 올라서면 독이다. 손 하나를 엮을 만큼 얇은 독의 물은 먼 데서 땡,

땡, 땡 울리는 교회 종소리를 받아먹으면서 흘러간다. 독 건너편 미루나무들은 국유 5필지인 북천수를 다 바라보지는 못한다.

조선 철종 때 흥해 군수 이득강이 북천에 독이 없어 장마만 지면 수해가 나는 것을 보고 군민을 동원하여 제방을 쌓고 4리에 뺨친 북천수를 조성하였다는 이곳에는 농가와 논밭들이 산다. 정월 보름날 숲 제당에서 동제를 지내고 이날 오후 3시 마을 앞산에서 산제를 지내며 전년도에 묻어둔 간수의 상태를 보고서 그해 길흉화복을 점쳤다는 선조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여기서는 목숨이다.

2010년에 경상북도 맛집으로 선정된 포방림가든과 누구든지 생명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포방림체험농장도 빛나는 목숨이다. 친환경농법의 하나인 우렁이를 주변 농가에 대는 토박이 박도영 사장은 여기서 산다. 포항환경학교 교장을 역임하다가 자연으로 돌아간 이정호 선생의 푸른 냇도 여기서는 백년을 살고 또 산다. 북천수와 북천수 주변에는 천 개의 목숨, 만 개의 목숨이 산다.

글 | 정치준 사진 | 안성용



포항시립미술관, 봄맞이 기획전 〈생활의 목적전〉 개최

포항시립미술관에서는 봄맞이 기획전으로 〈생활生活의 목적目的전〉을 4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연다. 이번 기획전은 포항시의 유일한 공공미술관으로서 일반 시민들의 발걸음이 잦은 미술관의 대중적 위상은 물론 바닷가 공원 내에 위치한 장소적 특성과 따스한 봄 시즌의 계절적 특성을 연동시켜 시민들이 편하고 즐겁게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전시이다.

전시의 제목인 ‘생활의 목적’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색다른 삶에 대한 목표와 지향을 담고 있는 말이지만, 이번 전시는 이에 대한 한자 풀이가 살아가면서(生活), 눈(目)이 목표로 향하는(的) 것임을 주목하여 전시의 내용적 열개로 삼았다.

목적(目的), 다시 말해 눈이 목표로 하는 것은 결국 평범한 삶 속에서 색다른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들의 시선과도 일치한다는 면에서 미술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궤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술관의 주요 역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 전시의 제목은 미술을 통해 아름답게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는 공간인 미술관의 기본적인 소임과 역할을 상기시키는 주제인 셈이다. 아울러 목적의 영어 표현이 오브제(object)란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전시란 어떤 면에서 색다른 사물들, 감성화된 사물들(objects)과의 만남을 뜻한다.

그렇기에 이번 전시는 만물이 생동하는 봄날,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예술이 전하는 다양한 오브제들과의 만남을 통해 색다른 일상, 남다른 느낌을 재발견할 수 있는 공간과의 만남을 제안한다.



1 권오상 더 플랫
18_2006_180x280cm,
Diasec_on_Lightjet_print

2 하정웅박사 미술작품 기증

재일교포 하정웅(河正雄) 박사 미술작품 기증

재일교포 하정웅(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 박사가 지난 2월 24일 포항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승호 포항 시장을 비롯한 지역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립미술관에 소장작품을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된 하 박사의 컬렉션은 같은 재일교포 2세인 손아유의 작품이다. 손아유는 1949년 포항시 동해면에서 태어나 일본과 유럽에서 판화, 드로잉, 행위예술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다 지난 2002년 52세로 작고했다. 특히 이번 기증은 작가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을 그의 출생지인 포항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하 박사의 세심한 배려가 깔려 있어 지역미술사 연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 박사는 1939년 일본 히가시오사 카시(東大阪市)에서 태어난 재일교포 2세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재일교포 기업가이다. 아울러 재일한국인문화예술협회 회장, 미술품 컬렉터이자 맹인복지사업가, 재일 한국인 문화예술협회 회장 역임 등 한·일 문화교류에 있어 민간외교 활동가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 박사의 기증이 의미 있는 것은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로서 개인 소장품을 사회에 기증한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타국의 삶 속에서도 미술품을 개인의 사유재산에 국한시키지 않고 기증을 통해 국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전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메세나운동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후원해요

포항시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메세나운동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메세나(Mecenat)란 문화예술에 대한 원조 및 후원을 통해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기업 활동을 말한다.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기업 후원으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수준 높은 창작활동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메세나 운동에 참여하는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의 자매결연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우수 예술단체 소개 및 선정, 참여기업체 모집절차를 마친 후 오는 6월경에 자매결연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포항을 빛낸 인물 제4호

김현룡 金見龍 장군(1550~1620)

조선조 명종5년(1550)에 연일현에서 출생, 호는 수월제이다. 본관은 수원이며 신라 경순왕 후예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대범하여 큰 인물이 될 것으로 세인들의 칭송을 받았다.

또한 학문에 뜻을 두어 식견이 높아 향리의 추앙을 받아오던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친제 김원용, 종제 김우정 등과 사재를 털어 의병을 모아 왜적과 싸워 많은 전공을 남겼다. 특히 형산강 전투에서는 전과를 얻었으나 경주전투에서 사촌동생 김우호가 전사하고 그 후 김우정도 적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영일지방에서 창의하여 안강, 경주, 영천, 팔공산 전투에서 각 지방에서 모인 의사들을 규합하여 당시 의병장 곽재우, 권응수와 함께 경남 창녕 화왕산성 전투에 참가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북진하는 왜병을 막기 위해 7년 동안 사력을 다해 종군하다 전쟁이 끝난 후 고향땅에 돌아오니 마을과 집은 초토화되고 돌아오지 못한 집안 동생들의 슬픔을 억제할 길 없었다.

조정에서 공의 전공을 가상히 여겨 두묘표진만호를 제수하였으나 이를 사양하고 연일현 남쪽 월동서사에 거처하며 시문을 즐기다가 일생을 마쳤다. 공이 세상을 떠난 무자년(1620)에 호조참의를 증직받았다. 그와 관련된 교지 1점과 임란일기 1책이 문화재자료 제368호(2002.7.15)로 지정되어 있다.

2011년 2월 28일 포항정신문화발전위원회는 김현룡을 제4호 포항을 빛낸 인물로 선정했다.

시립연극단 찾아가는 공연 『옥단어』

- 일 시 : 2011. 3. 28. 13:30
- 장 소 : 포항시청 문화동 대강홀
- 문 의 : 054-272-3033

임산부와 다자녀가족을 위한 음악회

- 공 연 명 : 시립합창단 제77회 정기연주회
- 일 시 : 2011. 3. 31(목) 19:3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출 연 : 포항시립합창단(지휘/상임지휘자 공기태), 피아노/박정혜, 재즈중주/편스 트리오

경주예술의전당 초청 포항시향 특별연주회



서울예술의전당 2011 교향악축제 초청공연

- 공 연 명 : 포항시립교향악단 특별초청공연
- 일 자 : 2011. 4. 5 (화)
- 장 소 : 서울예술의 전당

[어린이뮤지컬] 캐릭터 뮤지컬

- 주 최 : 초록공간문예기획단
- 일 시 : 2011. 4. 9~4. 10. 13:00~18:00
- 장 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문화동
- 입 장 료 : 25,000원

환경음악극 <물의노래>

- 일 시 : 2011. 4. 21. 19:30~20:40
- 장 소 :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대공연장
- 주 최 : 환경부
- 주 관 : 한국환경노래보급협회
- 연주단체 : 대구시립합창단

포항과 경주의 경계인 중명은 지금까지도 영일 중명과 경주 중명으로 불린다. 마을 가운데 작은 실개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주와 포항을 나누는 경계가 되고 있다.

‘중명’의 유래는 연오랑 세오녀의 말에 따라 제사를 지냈더니 하늘의 광명이 다시 비치기 시작했는데 그 광명의 한가운데에 자리하면서 마을의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경주에서 보나 포항에서 보나 어찌면 가장 변두리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 광명의 가운데였다니 언뜻 생각해도 무엇을 상징하는 것만 같다. 서쪽에 있는 형산과 연결하여 그 의미를 찾아볼 일이다.

이 산정에는 왕장군 용왕사가 있는데 ‘김부대왕과 김충태자’라고 불리는 목상이 있다. 회화나무로 조각했는데 머리 부분이 유난히 큰 부조화의 목상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고려 때 신라의 유민이거나 경순왕을 기리는 사람들이 모여 사당을 짓고 목상을 만들어 모셨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당은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기복처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면서 조선에 와서는 그 일대가 굿당으로 변해 버리고 말았다. 유학의 나라 조선에서 선비들의 눈에 그 목상이 고와 보일 리가 없었다.

조선말 연일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세도정치의 영향으로 과거시험은 볼 수조차 없는 형편이었다. 합격자 대부분이 세도가의 자식들이거나 그쪽과 연이 닿아 있는 자들이었다. 과거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시골에 있자니 느는 것은 술이요, 넘치는 건 객기였다.

어느 날 부조장에 가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얻어먹은 공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였다.

“이게 무슨 소린고?”

불쾌해진 눈을 치켜뜨면서 소리를 따라갔더니 굿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때 연일현



왕종사 목상의 수난

글 | 김일광 삽화 | 이수정

청에서 선비들이 나누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형산 밑에 굿당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 굿당에서 흑세무민을 일삼다는 거였다. 또 그 흑세무민의 원흉이 목상이라고 했다.

술에 취하면 용기가 생긴다고 했던가. 선비는 두 손바닥에 침을 ‘뿔뿔’ 바르고는 산을 타고 올라갔다.

“내가 이제야 할 일을 찾은 거야. 내가 선비로서 벼슬을 얻지 못하여 백성을 위하여 할 일이 없어 장터 술주정뱅이가 되었는데 벼슬이 아니어도 백성을 위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은 이제야 깨달았네.”

선비는 어질어질한 머리를 흔들며 취기를 쫓으며 사당으로 들어가서 보니 목상에는 치렁치렁한 금줄까지 걸려 있었다. 그 금줄을 보자 선비는 화가 불같이 일었다. 바로 목상을 들고 나와서 시퍼런 형산강으로 내던져 버렸다. 형산강에 떨어진 목상은 빙글빙글 돌면서 떠내려가고 있었다. 이를 내려다 본 선비는 손바닥을 툭툭 떨면서 바위 위에 한참동안 앉아 있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무거운 목상을 나른 탓인지 기운도 빠지고, 술도 다 깨버렸다. 조금 지나자 숙취 탓인지 머리가 몹시 무겁고 아팠다.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그날부터 몸져눕게 되었다. 온갖 약을 다 써보아도 소용이 없었다.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목상이 없어지자 사당도 자연히 허물어지고 말았다. 선비들의 기세가 등등하던 시절이라 목상이 사라진 연유를 그 선비에게 가서 따져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3년이 지나가게 되었다. 시름시름 앓던 선비는 어느 여름 비바람이 몹시 몰아치는 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어찌나 비가 많이 왔든지 수년만에 겪는 홍수였다. 형산강이 넘쳐서 중명마을은 물론 연일의 들과 마을을 죄다 집어 삼켰으며, 영일만의 절반이 흙탕물로 뒤덮이기도 했다. 논밭을 휩쓸어갔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쓰던 가재도구까지 깡그리 떠내려 보내야 했다.

비가 그치자 사람들은 그 선비를 산에다 묻었다. 그런데 중명마을 건너편 유동마을을 지날 때였다. 한 상두꾼이 소리를 질렀다.

“저기 저 갯버들에 뭐가 걸렸어.”

“죄다 떠내려갔는데 뭐가 걸렸단 말이야?”

상두꾼들이 우르르 몰려가 보았다. 아, 글썸 그곳에는 3년 전에 선비가 형산강에 던져버린 목상이 갯버들 가지에 걸려 있는 것이었다. 목상은 3년 동안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은 것이었다. 엄청난 물난리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이었다. 상두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목상을 업고 강을 건너갔다. 사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왕룡사로 옮겨서 오늘날까지 보존하게 되었다.



친환경 전통장 브랜드<죽장연> ... 장 담그기 체험



죽장면 상사리에 위치한 친환경 전통장 농원인 죽장연(영일에스앤티 대표 정연태)이 진행하는 전통장 담그기 체험행사가 도시 주부들의 관심을 모았다. 3월 15일 이른 아침 죽장연을 찾은

포항 및 울산 지역 50여 주부들은 체험에 앞서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장 시설을 견학한 후 1천여 개의 옹기가 늘어진 장독대에서 메주를 세척하고 소금물을 맞추는 등 전통장 담그기 전 과정을 체험했다. 더불어 옹기에 고추와 대추, 숯을 띄우는 체험을 통해 맛있는 장을 담그는 비법도 전수받았다.

이번 체험은 친환경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도시화·핵가족화에 따라 가정에서 전통장을 담기 어려워진 주부들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참가 주부들에게는 이색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경험이 되었다. 한 참가 주부는 “생각했던 것보다 장 담그는 방법이 간단해 놀랐다”며 “장을 사다 먹기만 했는데, 이제 집에서도 장을 충분히 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체험 소감을 밝혔다.

영일에스앤티는 자매마을인 상사리 주민들과 10여 년 전부터 전통장을 담가오다 이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자는 취지로 전통장 브랜드 ‘죽장연(竹長然)’을 탄생시켜 지역 주민들의 농한기 수입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도·농상생의 새로운 농촌소득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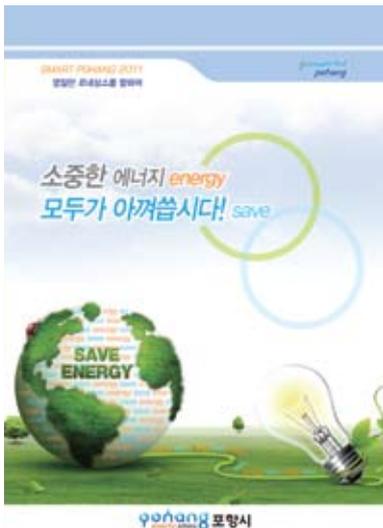
녹색체험은 포항환경학교에서 하세요



포항환경학교가 2011년 환경체험교실을 개설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환경체험교실 신청자는 3월 15일부터 연중 모집한다.

신청은 학교 홈페이지(www.pecoschool.net)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은 유치원생(7세반) 교육, 초중학생 대상의 학교단체교육(1회 40명 이내), 일반시민·시민단체회원·기업체직원 등의 일반모집교육(1회 20~30명 이내)으로 나눠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환경홍보관과 에너지체험관에서 환경보전 기초이론에 대한 수업과 함께 사방기념공원 생태체험, 기청산식물원 멸종위기식물 체험, 형산강 수질측정 및 생태탐사 등 주변시설 연계학습 등으로 구성되고 테마행사로 에코 숲속음악회, 여름 환경가족캠프도 운영한다.



에너지 절약, 52만 시민 함께해요!

최근 에너지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되면서 에너지 절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포항시는 최근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과 함께 공무원 승용차 5부제 시행 강화, 청사 에너지 절약은 물론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중식시간 소등, 컴퓨터 끄기 등 공무원들이 먼저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부분에서도 현재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판매소는 영업시간 외 소등 ▲유형업소(유형주점, 단란주점은 새벽 2시 이후 소등 ▲골프장 옥외 야간 조명 금지 ▲아파트·오피스텔·금융기관 등 건물의 야간조명 24시 이후 소등 ▲주유소·LPG충전소 주간 소등 및 야간 2분의 1 사용 등의 강제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시는 에너지사용 제한 강제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현재의 주의단계에서는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홍보·계도위주의 점검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죽장 청정 고로쇠 수액 맛 보세요!



죽장 고로쇠 수액은 주야간 기온차가 15°C 가 넘는 해발 700m 이상 고지대 고로쇠나무에서 채취해 마그네슘·칼슘·미네랄이 풍부해 갈증해소 및 노폐물제거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한 고로쇠 수액은 현재까지 약 18만 리터를 채취했지만 지난 2월 죽장고로쇠축제가 구제역으로 취소되면서 생산주민들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현수막 지원, 인터넷홈페이지 광고, 공무원 고로쇠 팔아주기 운동 등 유관 기관단체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판매지원 행사에 나서고 있다. 가격은 18리터 4만5천원, 9리터 2만3천원이며 기타 문의는 포항산림조합(242-3444) 및 죽장하나라마트(248-9233)로 하면 된다.

호국시설 체험해도 봉사활동 인정



포항시는 지역 청소년들의 애국심 및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호국의식 체험형 봉사활동 인정제도>를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호국의식 체험형 봉사활동은 호국시설 견학 및 체험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시는 해당 시설에 대한 포토존 정비와 함께 체험형 봉사활동 제도를 포항교육지원청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시설은 영화 <포화 속으로>로 유명해진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및 전물학도충훈탑, 학도의용군 6·25전적비, 해도공원 6·25참전유공자 명예선양비, 포항함, 송라대전리 3·1기념비 등이다.

포항~여수 간 소형항공기 취항

포항~여수 간 부정기편 소형항공기가 3월 7일부터 정식 취항에 들어갔다. (주)에버그린에서 운영하는 소형항공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간 매일 3회 왕복 운항하게 된다. 운항항공기는 19인승으로 약 350km 속력으로 포항~여수 간을 40여분 내로 운항한다.

최대 생산량 구룡포대게 인기 만점



대게 전국 최대 생산지인 구룡포항에는 요즘 대게 풍년이다. 구룡포수협에 따르면 구룡포항에서 위판되는 대게는 수협 위판 기준으로 3만여 마리에 달하고 이는 전국 생산량의 5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구룡포대게는 구룡포항에서 위판된 후 유통센터 및 택배 등을 통해 전국으로 보내지며 일부 물량은 구룡포항 대게전문식당 및 유통센터에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포항시는 대게유통센터 건립지원에 나서는가 하면 전국 최대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영덕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광고 제작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재 등 전국적인 홍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포항관광은 시티투어버스로 하세요



포항시는 3월 19일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정기코스과 역사문화유적 탐방 수시코스 등 3개 코스의 관광시티투어를 운영한다. 매주 토·일요일은 오전 9시 30분 포항역 광장에서 출발, 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관광명소를 7시간 30분 정도 일정으로 관람하게 된다.

특히 동해바다·문화유적·산업단지 등 포항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코스에 담았으며 토요일 코스, 일요일 코스, 역사문화유적 코스로 나눠져 관광객들이 다양한 관람과 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버스증차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최근 시내버스가 증차돼 대중교통 서비스가 더욱 개선되었다. 양덕과 동해를 운행하는 101번 노선이 증차돼 동해~약전 구간을 왕복운행하며, 장량휴먼시아 경유로 운행간격이 늘어난 108번 노선도 증차됐다.

흥해를 기점으로 하는 흥해~신광(마북, 기일), 청하~송라(대전리, 지경리), 청하(월포)~흥해(칠포)노선은 장성~흥해 간 도로 개통에 따라 양덕으로 연결 운행되며, 청하~보경사 노선이 문덕~보경사 노선으로 조정되고 북부해안지역(칠포, 월포, 오도, 청진도 1일 5회 시내까지 노선이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에서 흥해까지 운행하는 노선과 흥해~청해(청계) 구간이 신설되어 각각 1일 4회 및 2회 운행하게 된다.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이달부터 본격 추진



자립형 신도시를 조성하는 포항테크노밸리(포항테크노파크 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포항시와 포스코건설 및 신한은행 등 사업참여 회사들은 3월 4일 포항시청에서 포항테크노파크 2일반산업단지 사업협약 체결식을 갖고 오는 2018년까지 신개념 복합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업에는 신한은행 등이 3천500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자금을 대출하기로 했는데, 이는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사태 이후 비수도권 최대 규모 신규 PF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연일읍 학전·달전리 일원 207,444㎡(약 62만7천평)에 조성되는 포항테크노밸리는 국내 최고의 산업·과학적 성장 잠재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주거인구 5천명을 포함해 모두 1만 명 이상 인구가 상주하는 신개념 복합신도시로 조성된다.

일본 대지진과 해일, 결코 남의 일 아니다



포항시는 최근 일본 대지진을 교훈삼아 동해면 임곡리 등 해안지역 39개소에서 지진해일 대비태세 점검훈련을 실시했다. 포항시는 3월15일 해안지역에 해일이 밀려올 경우 가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해안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고지대 임시

대피소로 피신하는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마을 주민 50여 명은 지진해일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리자 이동경로를 따라 현장에서 500m 떨어진 임시대피소로 피신했다. 이날 경보발령은 시가 23개소에 설치한 지진해일 경보시스템을 활용해 내렸고 주민들이 차분하게 피신을 완료하는 등 훈련성가가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일본의 대지진은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도 지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교훈을 주었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수시로 이 같은 훈련을 실시하겠다” 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오천 냉천 명품하천된다

포항시의 지방하천인 오천을 냉천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 우선대상자로 선정돼 생태하천으로 복원된다. 시에 따르면 진전저수지에서부터 청림동까지 13.4km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올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 2016년까지 320억 원을 투입해 자전거도로·산책로·잔디광장·체육시설·테마공원·수변공간을 조성하는 등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는 것. 냉천은 현재 치수 및 재해예방 기능을 가졌지만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면 용이한 접근성으로 생태, 문화, 만남광장, 레포츠 등의 기능을 갖춘 전국 최고의 명품하천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질적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

포항시는 폭설과 구제역, 유가상승 등으로 물가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특히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괄지원, 서민물가안정대책, 취약·소외계층보호대책, 선제적 재난·재해 예방대책 등 4대 분야 49개 세부시책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해오던 일자리창출, 물가안정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등을 통합한 서민생활안정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상반기 조기집행 대상액의 57.4%인 3천84억원을 집행하는 한편, 선제적 물가관리를 위해 물가안정/F팀 운영, 공공 및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등을 강화한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환경개선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농축수산업에 대해 특별지원을 강구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사회적 기업 및 재정지원 일자리를 시행하고 취약·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 지원강화,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영어체험전용교실 올해 18개교에 구축



글로벌 인재양성과 영어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포항시는 2011년 지원대상 초등학교 교장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5일 <2011년 영어체험전용교실구축 사업설명회>를 열고 올해 창포초등학교 등 18개교에 1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를 제외한 전체 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도의원 초청간담회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총력



포항시가 지역 국회의원·도의원 초청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국·도비 확보는 물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등 지역 현안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3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도议원을 초청해 시의회 및 시청관계자와 연석 간담회를 갖고 2012년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

역의 당면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국가지원사업 등에 대한 국·도비 확보에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한 전략방안 등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테마가 있는 가로수로 쾌적한 녹지네트워크 구축



포항시는 테마가 있는 가로수 식재를 통해 시가지 전역을 쾌적한 녹지네트워크로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2015년까지의 가로수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신규도로 개설 및 확장 시 가로수 식재계획을 반드시 반영키로 했다. 특히 다양한 가로수 수종 발굴과 시민 의견 반영을 통해 노선별 신록·녹음·단풍·꽃·열매 등 테마가 있는 가로수길이 조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삼호로 등 4개 노선 4.1km 구간에 은행나무 외 3종의 가로수를 식재하고 2015년까지 22개 노선을 추가로 조성해 주거생활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 3%에서 5%로 상향 조정

포항시는 최근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기준액을 시세수입 결산액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공교육 강화를

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으로 포항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Happy-5프로젝트>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도동 다목적체육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짓는다

장애의 유무나 남녀노소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다목적 체육관이 포항에 들어선다. 포항시는 3월 7일 대도동 일원에 들어설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를 전국 건축설계공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다목적체육관은 지상 1~2층, 연면적 6,000㎡로 총 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된다. 그리고 배드민턴장, 족구장, 배구장, 농구장, 핸드볼경기장, 장애인 체육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해 양질의 생활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포항문화관광해설사 전국 최고 감동서비스 제공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일반적으로 관광지에서 근무하면서 관광객들을 안내하지만 포항문화관광해설사들은 공격적인 마인드로 신경주역에서부터 단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다시 신경주까지 배웅하는 등 전국 최고의 감동서비스를 펼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KTX신경주역 개통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포항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문화관광해설사 16명은 토·일요일 없이 해박한 지식과 세련된 화법으로 투어 가이드와 관광지 알리기에 열을 올리며 관광도시 포항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이들은 근무시간이 공무원과 동일하지만 포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스케줄에 따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불평·불만 없이 포항관광을 책임지고 있다.

불법광고물 끝까지 뿌리 뽑는다

포항시가 시민들의 보행 및 교통을 방해하는 현수막·에어라이트·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과 함께 음란성, 고리사채 전단지 등 유해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단속을 통해 도시미관 조성은 물론 청소년 탈선 예방과 서민금융피해자 사전 보호에 나선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음란성·고리사채 등 유해전단지 완전 근절을 위해 경찰, 한국옥외광고협회포항시지회 등과 합동으로 주야간 입체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20명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실버정비단을 운영하고 있다.

관광객 불편해소 위해 덕실마을 <덕실관> 개관



대통령고향 덕실마을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상 2층 규모로 <덕실관>을 건립하여 지난 2월 24일 박승호 포항시장과 덕실마을 주민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간단한 개관식을 가졌다. 덕실관은 899㎡의 부지에 14억 5천만 원(도비 7, 시비 7.5)으로 건축면적이 411㎡로 1층에는 휴게실과 기념품판매점, 전시실이 있으며, 2층에는 영상관과 정보검색코너가 운영되고 있다. 실외에는 파고라와 벤치 등으로 덕실마을을 찾는 외래관광객들이 잠시나마 머물러 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덕실마을은 2007년 12월 대통령고향마을로 전국에 알려지면서 지금까지 84만 2천여 명

이 방문했지만 다양한 볼거리 부재와 잠시라도 머무를 수 있는 휴식, 쉼터 공간이 없어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었다.

시설관리공단 창립기념식 품격 높은 공공서비스 다짐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3월 11일 시청 1층 야외공간에서 박승호 포항시장 등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은 포항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역사적 소명과 시대적 책무에 신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규방 초대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시설관리공단은 효율성과 공공성을 조화시켜 다양한 시민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설립목적이 있으며 품격 높은 공공서비스,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 투명하고 발전적인 경영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중소기업 <무역아카데미> 연다

포항시가 중소기업의 무역 실무능력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도와 공동으로 무역아카데미를 운영한다. 한국무역협회(KITA)에 위탁해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간(총 23시간) 일정으로 포스코 국제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현장 중심의 무역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해당분야 최고의 강사진들이 강의를 맡게 된다. 이번 강의는 무역계약실무, 수출입 대금결제, 외환 및 금융실무, 무역 시뮬레이션 등 일선 무역현장업무에 필요한 핵심적인 강좌

들로 구성돼 있으며, 수강료는 무역협회 회원사는 5만원, 비회원사 및 개인은 10만원이다. 수강료에는 숙식비와 교재비가 포함돼 있다. KITA 대경본부(FAX 053-753-7530)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3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35명을 모집한다.

새 주소안내도 제작 배포

포항시는 내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하게 될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 새 주소안내도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새 주소안내도는 포항시 전체 1,704개 도로구간을 277개 도로명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포항시 전체 도면과 동지역과 읍·면소재지를 나타내는 세부상세도로 구분됐다. 포항시는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주소를 많이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등에 우선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올해까지 현 주소체계와 병행 사용하며 내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된다.

외래관광버스기사 쉼터설치로 포항 관광을 유도한다



포항시는 호미곶해맞이광장 내 (구)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해 외래관광버스 기사들의 쉼터로 개방했다. 쉼터에는 텔레비전과 전화기, 컴퓨터, 냉온수기, 소파 등 편의시설과 함께 포항2경, 시티투어안내패널, 관광안내리플릿 등을 설치 및 비치했다. 시는 포항 이미지 및 주요관광지를 홍보하고 간접적으로 포항관광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건의안 의결



포항시의회는 지난 2월 17일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 시킨 가운데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건의안을 의결하는 등 10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17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의 개의 후 이상범 의원은 <구제역 대응책과 사후관리>, 차동찬 의원은 <재난대책과 사회복지분야>, 이상훈 의원은 <신 제강공장 공사 재개로 인한 포항 공항 활주로 연장>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부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의 위원회안과 <포항시 무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원안인결하고,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 계획안>과 <환여도시계획도로(중1-56)개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특히 지난 1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를 유치하기 위해 포항시의회는 위원회안으로 제출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에 관한 건의안>을 의결했다. 청와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기로 한 이 건의안에서 포항시의회는 “52만 포항시민과 함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성장 잠재력이 어느 도시보다 경쟁적 우위에 있는 포항을 거점지구로 하고 대구와 울산을 기능지구로 하는 영남권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타디그룹 역량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포항시의회 의원 스타디그룹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기로 했다.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 포항시의회의장)는 지난 2월 18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179명,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장을 비롯한 초청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먼저 최봉기 계명대 정책대학원장을 초빙하여 <지방자치 발전방향과 과제>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이어 서울시 강서구의회 강석주 의원 등 16명에 대한 제3회 지방의정봉사대상 시상이었다. 또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결의문>과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책임과 권한의 철저히 이행하고 △헌법 개정,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분권 정책 추진 등이 지방의 의사를 보다 존중하는 기회가 되게 할 것을 요구하며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공직선거법 개정,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구 협의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지방자치는 지난 20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졌다”며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바꿀 때이며 지방의회가 미래를 여는 희망의 상징이 돼야 하고 국가이익과 지방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해야 한다”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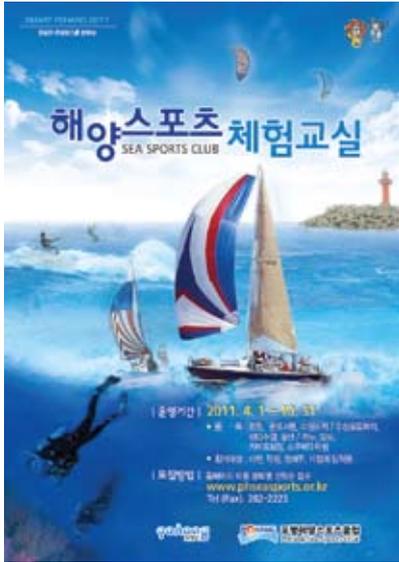
역대 의장 초청 2011년 의회 운영 방향 설명



포항시의회는 지난 2월 15일 시내 조수사 식당에서 역대 의장을 초청하여 시민 중심의 열린 정책의정을 구현하겠다는 <2011년 포항시의회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진병수 2대 후반기 의장, 박태식·임선순 3대 전·후반기 의장, 박문하·최영만 5대 전·후반기 의장 등이 참석하여 시정 및 의정활동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해양스포츠클럽 체험교실 모집



[참가문의] www.phseasports.or.kr, 282-2223

6·25전쟁 납북피해신고 접수

- 신고기간 : 2011. 1. 3~2013. 12. 31(3년)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1950.6.25~1953.7.27) 단, 군인은 제외
- 신고자격 :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자 및 납북가족 피해자와 친족 관계인 자
- 구비서류 : 납북피해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납북경위서피해신고입증 증거자료

[문의] 신고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청 및 구청 자치행정과 읍면동(270-8282)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하세요

3월 2일부터 지방세 납부절차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여 전국 모든 시군 지방세를 인터넷과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을 통해 OCR 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 실시로 현행 OCR 고지서가 폐지되고 납세안내문으로 대체됐다. 그동안 포항시 관내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BC, 삼성, 현대 등 3개사의 신용카드로만 지방세를 납부하게 된 것을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확대해 납세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제 주민들이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고지서를 지참할 필요 없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만 있으면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지방세부과, 체납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가족 등 타인의 지방세를 납부할 때는 해당 납세자의 간편납부번호만 알고 있으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기존의 가상계좌로도 계속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가정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이용이나 정보화기기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세안내문을 지참하거나 전자납부번호 또는 간편납부번호를 은행 창구에 현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납부

포항시는 민원 편의를 위해 그 동안 현금으로만 받았던 각종 제증명 및 인허가 수수료, 과태료 등을 국내 8개사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납부시스템>을 구축했다.

- 시행일 : 2011. 4. 1부터
- 납부대상 : 제증명 및 인허가 수수료 과태료 등
- 납부방법 : 신용카드(국내 8개사) 및 선불교통카드(T-money)
- 납부장소 : 시청,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민원실, 대구은행(시청,구청) 창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

- 시행일 : 2011. 3. 8
- 개정사항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확대

- 신청장소 : 경북신용보증재단(276-1876)
- 대출금액 : 2천만 원 이내, 이자차액보전 3%(2년간)
-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기본서류)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처벌강화

- 적용시간 : 오전 8시 ~ 오후 8시
- 장 소 :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 법규위반 및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단위 : 만원)

구분	범칙금	과태료	벌점
주·정차위반	4→8	4→8	-
속도위반 ~20/20~40/40~	3/6/9 →6/9/12	4/7/10 →7/10/13	없음 / 15 / 30 → 15 / 30 / 60
신호·지시위반	6→12	7→13	15→30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1. 3월~9월
- 조사내용 :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전기·가스·증기 수도사업, 도소매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여가 관련, 협회 및 개인서비스업

[문의] 시청 기획예산과(270-2212~4)

공동주택 대표자 등 선거지원

- 근거법규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거
- 지원범위 : 투표 및 개표관리, 위반행위단속 조사 및 선거계도·홍보
- 요청방법 : 사전협의 및 지원요청서 제출 지원여부결정 후 약정체결 등

[문의]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278-1390)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247-2979)

머리 맞대니 일자리창출 아이디어가 톡톡!

구룡포 말목장성에 등산로를 조성하고 다문화가정 자립을 위한 도시락 배달사업을 펼치자, 3월 14일 열린 포항시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보고회에서 총 1천75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54개 일자리 사업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조선시대 최대의 군마생산지인 목장성의 역사적 의미 재조명을 위해 20여 명을 투입하는 <말목장성 등산로 개설> 아이디어는 등산로 개설 740m, 돌탑과 초가집, 장승 등을 설치해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일 상설채용박람회, 트위터를 이용한 일자리 정보 제공, 찾아가는 취업 상담반 운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청년 창업가의 육성,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발굴, 직업 훈련과 전직·재취업 지원사업에도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트위터에 가입하면 일자리가 보여요

 포항시는 그동안 구인업체 직종에 맞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문자서비스(SMS)를 이용한 채용정보를 제공했지만 이제는 트위터에 가입하면 모든 채용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체제를 운영해 각종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포항일자리>계정은 Twitter@pohangjob(http://twitter.com/pohangjob)으로 누구나 팔로워에 가입하면 각종 채용정보, 채용박람회 행사, 직업훈련 안내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정보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취업을 앞둔 대학교 학생, 직업 훈련생 등 구직이 필요한 시민들의 가입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구직 등록한 사회적 취약계층(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게는 지속적으로 문자서비스와 전화로 채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포항시일자리종합센터, 자리 잡았다

포항시일자리종합센터가 올 들어 두 달 만에 96명의 취업실적을 내는 등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지역 일자리 정보를 총괄하기 위해 개소한 일자리센터는 12월까지 281명의 취업에 도움을 줬지만 올해 들어서는 2개월 만에 96명을 취업시키며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3명꼴로 일자리를 찾아준 것으로 지난해 월간 취업률 대비 33.8%가 증가한 수치다.

당당한 실버! 지금부터 시작~

포항시는 3월 4일 시청 문화동 대강홀에서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당한 노후를 보내려는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안전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참여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사회의 어른으로서 우리가 가진 능력을 멋지게 활용해 존경받는 어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박승호 포항시장은 “포항시는 앞으로 시대와 현실에 맞은 비전과 정책으로 어르신들의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5,019개 어르신일 자리를 제공했으며 <달콤한일터> 사업이 보건복지부 친서민 및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팡파르

포항시는 3월 2일 포항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사업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김성경 부시장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단순 생계지원사업이 아니라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온 사업”이라며 참여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사업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대식에 이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사례별 대처요령 등 안전교육이 있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시행

포항시는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2차로 일자리창출 인원 1명당 1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업체는 지역에 본사와 주공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상 2010년 1월 1일 이전에 기업을 설립해 운영 중인 300인 미만의 제조업체이다.

여성문화회관도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포항시 여성문화회관은 3월 7일 한국폴리텍VI대학 포항캠퍼스와 관학교류협약을 체결, <CO2 여성용접원 기술교육 채용예정자 훈련과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2개월 과정이며 수료자는 영일만 배후산업단지 내 (주)힘스에 전원 취업하게 된다.

현빈의 해병대사랑은 포항사랑



3월 7일 한류스타 현빈(29)이 포항해병대에 입소했다. 이날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위치한 오천읍은 국내외에서 찾아온 팬들로 붐볐다. 입소에 앞서 가진 팬미팅은 취재진과 팬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그의 인기를 실감나게 했다. 이날 제대하는 날 포항에서 다시 만나는 팬들의 머리에는 이미 포항이 각인되었다. 포항시도 이날 적극적인 포항마케팅을 전개했다.

이웃돕기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해요

포항시는 2월 24일 어려운 이웃에 사랑과 나눔의 봉사를 실천한 포스코 포항지역 P.C.P봉사단(대표 김완기 조선내화 부회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포스코 우수 파트너 업체 대표 회원 27명으로 구성된 포스코 포항지역 봉사단은 지난해 사랑의 집수리 3천만 원 지원, 푸드마켓 운영 2,400만 원 지원, 포항시 장학기금으로 2천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데 힘써 왔다.

기초생활수급자 위한 무료인공관절시술 선행

척추 및 관절염 전문병원인 제일마디병원 민강우 원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무료 수술을 못하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인 차 모 씨(여·54세)에게 무료로 인공관절 수술을 실시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민 원장은 “앞으로도 인공관절 무료시술 등 의료봉사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포항시새마을회 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실시



포항시새마을회(회장 박봉덕)는 3월 15일 북부해수욕장에서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토대청결운동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참여한 회원들은 제설작업 잔여 쓰레기를 비롯해 각종 오물, 비닐, 빈병 등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포항시새마을회는 저탄소 녹색생활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환경정화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미 해병대 무적캠프에 감사패 전달

포항시는 지난 3월 9일 드림스타트센터를 비롯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어 강좌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 해병대 무적캠프 부대원들에게 감사패와 감사장을 전달했다. 무적캠프는 주한미군 해병대 소속으로 미 해병 원정군 훈련지원을 위해 포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이다. 무적캠프는 부대 내 봉사단체를 14개로 체계화해 현재까지 영어강좌, 농촌일손돕기, 환경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대민지원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드림스타트 영어캠프 자원봉사자로 참가해 소외계층 아동들과 함께 어울리며 영어실력 향상에 노력하는 등 드림스타트센터 지원활동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

빠리콜 포항시 민원콜센터
270-8282

포항시장학회 장학금 기탁

- 북구보건소 2010년 성과관리 종합평가 시상금 50만원
- 포항시 여성가족과 2010년 성과관리 종합평가 시상금 100만원
- 박성선 개발자문위원연합회장 100만원
- 농협포항시지부(지부장 김영한) 포인트적립금 4천608만4천원
- 대구은행(본부장 최영수) 포인트적립금 539만6천원
- 명도학교 교직원모임 명도사랑회와 명도학숙 어머니회 100만원
- 한동대 박영근 교수 5,013,000원
- 포항수협(조합장 조유남) 522만원
- 김을성 전 포항시 남구청장 200만원
- 최광호 (주)진성테크 대표 100만원
- 현대종합금속(주) 정몽석 회장 1억원



영일만그풍속으로 | Digital Print | 100x80cm

| 작가노트 |

동해바다는 내가 사춘기 시절을 보낸 영덕과 강구,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포항 일상생활의 풍경이다. 바다의 평온함에 매료되어 그 바다와 나는 지금 옆에 중이다, 바다를 떠나 본 적이 없는 정체성으로 인하여 바다에 대한 나의 느낌은 평온함, 희망 등 항상 동경하던 감정의 세계를 사진예술로 담고 싶어 포항을 중심으로 7번국도를 따라 포항·영덕과 그 동해안을 기웃거린다, 흑백 현상 약품의 역겨운 냄새를 상큼한 바다 내음으로 착각하며, 피곤해도 바다의 숨소리를 통해 평온을 느끼고 비린내 나는 바닷가 일기장을 꼭 쥐고서 잠이 든다...

김덕수 | 단체전 2010 「포항산책, 기획전, 경북학생문화회관 / 2008[한국흑백사진 페스티벌] 울산문화예술회관 / [전국 "포사모" 회원전] 대구문화예술회관 / 2007[전국 "포사모" 회원전] 대구문화예술회관 / 2005[포항시 승격 50주년 국제우호도시 교류전] 포항문화예술회관 / [한국흑백사진 페스티벌] 청주 예술의전당 / 현재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 한국사진작가협회 남북교류분과 위원 / 한국산악사진가협회 회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최적지

포항

왜, 포항인가!

- 동해안 고속클러스터 포스텍 등 풍부한 R&D 인프라도시 포함
 - 기초과학 연구결과를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산업직접도시 포함
 - 과학자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청정·휴양·문화도시 포함
- ➔ 세계 최고 권위의 막스플랑크연구소가 입증한 과학도시 포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란

이명박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거점지구 기능지구, 연구단을 연계한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여 중이온가속기를 건설하는 등 2011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7년 동안 총사업비 3조5천487억 원을 투입해 과학과 문화가 융합된 아시아를 대표하는 기초과학 연구중심지로 성장·발전시켜 나간다는 국가적 프로젝트이다.